
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- 과학기술 · AI로 여는 대한민국 대도약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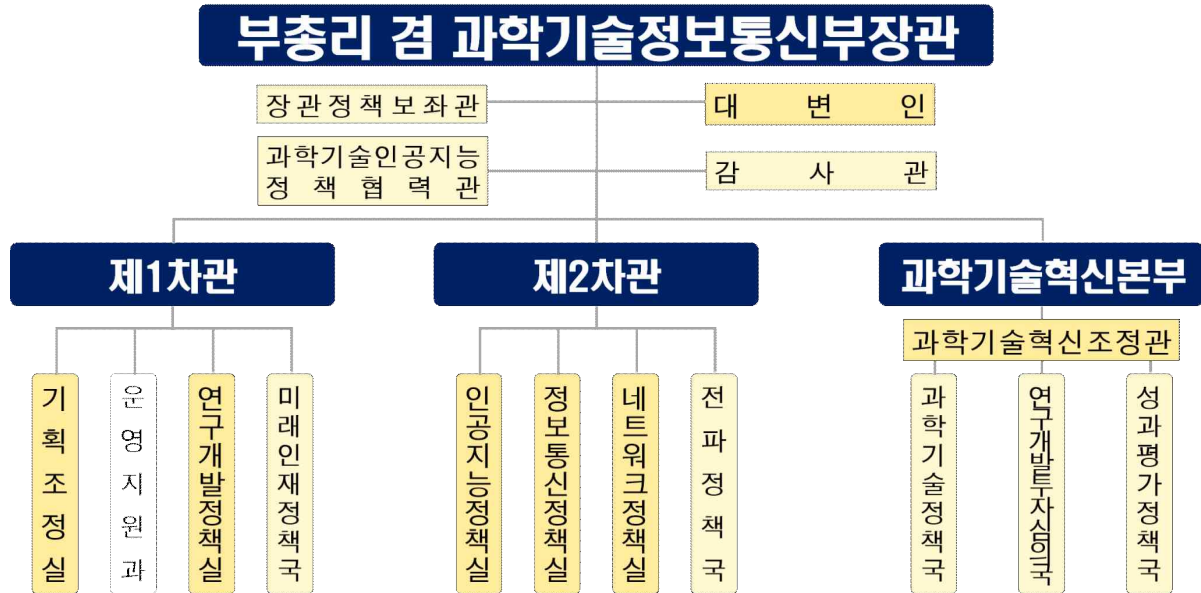
2025. 12. 12.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I. 일반현황

1 기구 및 조직 현황



※ 장관, 1·2차관, 본부장, 5실장·조정관·대변인, 20국·관, 77과·담당관·팀, 5소속기관

2 인원 현황

구 분	직급별	계	정무직	고공단	3·4급	4급	4·5급	5급	6급 이하	기타
합계	정 원	34,919	4	48	38	233	140	1,137	33,301	18
	현 원	34,365	4	40	41	223	128	1,130	32,781	15
본부	정 원	789	4	27	22	51	71	297	308	9
	현 원	771	4	23	25	59	53	307	293	7
소속 기관	정 원	34,130	0	21	16	182	69	840	32,993	9
	현 원	33,594	-	17	16	167	75	823	32,488	8

3 예산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25년 예산 (A)	2026년 예산 (B)	증 감 (B-A)	(B-A)/A
계	20,983,548	23,741,686	2,758,138	13.1
< 예산 소계 >	18,917,795	21,935,500	3,017,705	16
■ 일반회계	10,473,197	12,744,804	2,271,607	21.7
■ 특별회계	8,444,598	9,190,596	745,998	8.8
< 기금 소계 >	2,065,753	1,806,186	△259,567	△12.6
■ 원자력기금(원자력연구개발계정)	192,198	231,639	39,441	20.5
■ 과학기술진흥기금	100,264	90,346	△9,918	△9.9
■ 정보통신진흥기금	947,519	736,502	△211,017	△22.3
■ 방송통신발전기금	742,529	579,985	△162,544	△21.9
■ 기후대응기금	83,243	167,714	84,471	101.5

Ⅱ. '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

① '25년 성과 및 보완점

- **헌정질서 위기, 대외 신인도 하락, 통상환경 급변, 성장잠재력 하향, 연구 생태계 훼손 등 대한민국 최대의 위기 속에서 새정부 출범**
⇒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과 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숨가쁜 한해

□ **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**

- 17년 만의 과학기술부총리제 부활(10월)과 함께,
 - 실질적 범부처 협력·조정 플랫폼인 **국가AI전략위원회**(9월), **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**(11월) 출범
 - **미국 새정부와 공동번영을 위한 첨단과학기술** (퀀텀, 바이오, 우주 등) **협력 목표·과제** 확정 및 **중국 등 주요국과의 미래 협력방향 설정**
- ※ 한-미 기술번영 MOU(10.29), 한-중 혁신창업 MOU(11.1), 한-싱 디지털협력 MOU(11.2) 등



〈 제1회 국가AI전략위원회(9.8) 〉

☞ **부총리 조직으로 범부처 혁신을 지원하고,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확대 필요**

□ **제1호 공약 “AI 3대 강국 도약” 기반 마련, 성과 도출 가속화**

- **역대 최대규모의 AI 예산 편성**(’26년 9.9조원, 전년 대비 약 3배 증액)
-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구축의 마중물로서 **GPU 26만장* 확보,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착수**
 - * '25년 : B200 약 1만장, H200 약 3천장 등 1.3만장 확보
- AI 3강을 견인할 **「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」 개발 추진**
 - * 5개 정예팀 선정(8월) : *네이버클라우드, *업스테이지, *SKT, *NC AI, *LG AI연구원
- **4대 지역 AI 혁신거점* 구축 준비, AI 기반 민생서비스 발굴·추진**
 - * 광주·대구·전북·경남 등 4개 지역 AI사업 예타 면제 의결(8월)
- **글로벌 AI 선도기업 및 주요국과 AI 협력 확대를 위한 MoU 체결**
 - * 블랙록(9.25), 오픈AI(10.1), 현대차·엔비디아(10.31), UAE 인공지능특임장관 MoU(11.18)



〈 과기정통부·현대차·엔비디아 MOU(10.31) 〉

☞ **그간의 노력을 토대로,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조속히 창출 필요**

□ 무너진 연구생태계 신속한 복원 · 정상화

- 역대 최대 R&D 예산 편성('26년 35.5조원), R&D 예타 폐지 추진, 연구자의 행정 부담 완화* 등 현장 중심의 R&D 시스템 혁신

* 연구비 관리체계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환, 과도한 행정서식 최소화 등

- 기본연구 복원 및 기초연구 확대*, 출연연이 본연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PBS(Project Based System) 단계적 폐지 추진

* 소규모 장기(5년) 기본연구 복원 및 기초연구 '26년 최대규모 예산 편성(2.74조원, 17% 증가)

- 청년, 과학기술인재 성장 지원* 강화, AI·SW 등 맞춤형 교육 실시

* 이공계 국가우수장학생 7,801명, 연구생활장려금 35개교 지원

- 누리호 4차 발사('25.11월), 양자·바이오·AI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 집중 지원, 성과 가시화*

* 예 : (바이오) 뇌전증 신약 후보물질 7,500억원 대 기술 수출(9월, (주)소바젠)
(AI반도체) 퓨리오사AI, 리벨리온 등 2개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



〈 “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” 대국민 보고회(11.7) 〉

☞ 연구생태계의 복원을 넘어 우리나라가 **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**할 수 있도록, △**과학기술 인재와**, △**NEXT AI를 대비한 전략기술에 과감한 투자** 필요

□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및 국민 안전 확립

- 국가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범부처 합동 「정보보호 종합대책*」 수립(10.22)

* 1,600여개 IT 시스템 전수 점검, 정부 직권조사 강화,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확대 등 50개 과제

- IP 카메라 영상유출*, 보이스피싱**, 스미싱 등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디지털 역기능 예방 강화

* IP 카메라 보안 대책 수립(12.8) / ** 스마트폰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 기본 도입(삼성, 11.4~)

- 韓-엔비디아 지능형기자국 기술협력 MOU 체결(10.31), 「AI 네트워크 전략」 수립(12월), 가계 통신비 안정세 지속 유지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



〈 정보보호 종합대책 합동 브리핑(10.22) 〉

☞ 정보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강국도 사상누각에 불과, 국민이 **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** 필요

2 향후 업무추진방향

- ◇ **(임무)** AI·과학기술을 통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계층·지역 차별없이 기술발전의 편익을 모두가 향유하는 기본사회 실현
- ◇ **(목표)** '26년은 국민주권정부가 복원·정상화한 AI·과학기술 성과토대 위에서 국민·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결과물 도출에 역량 결집

[전략1] 새로운 거버넌스 하에 대한민국 혁신역량 극대화

- 정립된 과기AI 정부 거버넌스 본격 가동, 과학기술·AI 중심 국정운영 강화
- AI 기반 민관 협력체계 본격 가동, 범정부 R&D 행정혁신 및 성과확산

[전략2] AI 3강 도약 본격 시동 및 국민체감 성과창출

- 세계 Top 10 수준 독자AI모델을 확보하고,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제공
-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
- 과학기술-AI를 융합하여 세계적 성과 창출, AI로 제조 등 주력산업 혁신
- 국제사회와 AI규범·생태계 협력으로 K-AI 글로벌 확산·아태AI 수도 도약

[전략3]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추진

- 국가적 난제해결을 위한 K-문샷 추진, 바이오 등 미래전략기술 확보
- 과학기술 저변이 되는 기초연구·인재투자 확대
- 연구자의 도전과 몰입을 위한 R&D 생태계 지속적인 혁신

[전략4] 포용성장·국민안전 확보

-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역 자율R&D 확대 및 지역특화 성장엔진 확보
- 자연·사회 재해대응, 국민안전을 위한 기술개발, 과학 대중화 추진
- 기업·국민·정부의 사이버 보안역량 강화, 보안 패러다임 전환 추진

Ⅲ. 중점 추진과제

[전략1] 새로운 거버넌스 하에 대한민국 혁신역량 극대화

- ◇ 정립된 과기AI 정부 거버넌스*를 본격 가동하고, 과학기술·AI 기반 주력 산업 혁신, 미래 신산업 육성, 국가적 난제 해결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

전략수립 과기자문회의, 국가AI전략위 ⇨ 성과창출 과기AI부총리,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

① 범국가 AX협업·추진체계 구축 [국정과제 20]

- 부처별 개별AX 추진구조의 한계를 넘어, 범국가적 AX자원·역량을 효율적으로 연계·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-기업 AX협력·추진체계 구축

▲ 피지컬AI (국회, AI전략위, 산업·중기, '25.9~) ▲ 조선AX (산업, HD현대중, UNIST, '25.11~)
▲ 국방AX (국방, 산업, 중기, '25.12~), ▲ 기후에너지 (기후, '25.12~)

- 정부 AX사업 추진 시, 필요자원 수요를 반영하여, 과기정통부·민간이 보유·구축한 첨단GPU*, 독자 AI모델** 등 활용을 지원하는 'AX원스톱 지원시스템' 운영

* 정부가 확보한 첨단GPU 중 일정량 할당 및 활용 지원

** 「독자AI 파운데이션 모델」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국산 AI모델 활용지원

② 정부 R&D 행정혁신 및 성과확산 [국정과제 26·28]

- 부처 간 경계 없는 R&D 성과확산 고속도로 구축
 - 민간-범부처 원팀으로 「新기술확보 - 대형실증 - 혁신조달(시장창출)」까지 연계하는 '국가 선도 프로젝트' 추진(드론 등 2개 내외)

- 각 부처별 유니콘 육성을 위한 협업형 기술사업화 R&D 예산 확대

* 과기부^(AI반도체·바이오), 산업부^(모빌리티·제조), 방사청^(국방), 우주청^(우주), 복지부^(의료) 등 유니콘 3개 이상 창출(~'30년)

- 확대된 R&D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관리체계 고도화

- 예산편성 이후에도 R&D 사업의 목표달성과 효과적 집행 등을 지속 점검

- 예산심의에 AI를 도입('26.5월)하여, 유사중복을 방지하고, 국정과제 재투자

* 유사중복 사업 도출 0.6조원 규모 효율화('26년) → 전체 예산의 5% 절감 목표(~'30년)

- 부처별 추진 중인 전략기술의 연계·협업*으로 공동관리, 세계 최고기술(NEXT전략기술) 5개 이상 확보(~'30년)를 위해 차별화된 지원(투자제도개선·펀드 등)

* R&D-입지·보호-세제 등 연계 전략적 투자·지원

[전략2] AI 3강 도약 본격 시동 및 국민체감 성과창출

①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우리 AI 개발·보급 (국정과제 21)

□ 세계 Top 10 AI 모델 진입

- 「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」 프로젝트^{독파모} 1차 개발 완료(1월) 및 오픈소스 제공('26.上) → Top 10 모델 진입 목표('26.下)

- 독자 AI 모델의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AI 생태계 확장, 국방·제조·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화서비스* 개발·제공

* (예시) 군·방산 특화AI, 차량용 AI 에이전트, K-POP 버추얼 아이돌 등

□ 우리 AI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제공

- 국산 AI반도체와 모델을 적극 활용,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에서 국민체감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빠르게 도입, AI의 혜택을 확산('26년)

※ (예시) 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→ 가구당 농산물 평균 구매비용 5~10% 절감
AI 국세정보 상담사 → 생성AI 전화챗봇을 통해 상담 성공률 대폭 제고(도입 前 26% → 後 98%)

- 국내 대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AI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, 취약계층, 대학원(생) 등을 대상으로 AI 맞춤형 활용* 지원

* (예시) 어르신·장애인 돌봄 AI서비스 보급, 연구·교육용 생성형AI 유료버전 지원 등

- “범정부 공통기반” 위에서 보고서·보도자료 작성에 AI를 우선 활용하고, AI 활용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로 일 잘하는 AI정부 구현(행안부 협업)

□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, 대한민국 AI 챔피언 선발

- AI 확산 및 국민적 관심 고취를 위해 「전국민 AI 경진대회」를 개최하고,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기술·산업 발전 계기로 연결(3월~11월)

※ ①일반인, ②대학생, ③전문가 등 수준·주제별 대회 기획 및 홍보로 국민 참여 분위기* 조성

* (예시) AI 모델이 우리나라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답변하는 사례를 찾는 디지털 캠페인 병행 추진 등

- 입상자에게 상금, 후속 R&D 및 사업화, 창업 연계 지원으로 대회 성과 지속 지원

- 국내외 최고 AI제품·서비스 시연, AI콘텐츠 공모전 등 AI페스타 연계 개최

- 전 국민에 AI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온라인('우리의 AI 러닝') 및 오프라인 센터('AI라운지') 운영('26.上) 및 수혜 대상별 AI 교육과정 마련*

* ①초중고생, ②대학생, ③청년·군인, ④일반국민, ⑤전문가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마련

② 세계 최고 수준의 AI 혁신생태계 경쟁력 확보 (국정과제 20·22)

□ 우리 AI를 뒷받침할 고속도로 구축

- 산학연의 시급한 GPU 수요에 대응하여 정부 구매(1.5만장), 슈퍼컴 6호기(0.9만장) 등 GPU 3.7만장(누적) 연내 확보
 - 국가 프로젝트, 대국민 AI 서비스, 산업 및 벤처·스타트업, 지역AX 등에 GPU 배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체계적·전략적 배분 추진
- 데이터센터의 적시 구축·운영 지원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, 규제 특례 적용을 위한 「^{가칭}AI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(안)」 제정 추진
 - ※ 인허가 1.5~2년 소요, 중복 인허가 및 불필요 규제, 전자파 등 인식 개선 필요
- AI기업이 걱정없이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토록 법적 불확실성 해소*, 공공기관별 데이터 보안등급에 맞춰 민간 클라우드 도입(이관) 원칙 확립
 - * 저작권, 개인정보, 공공데이터 등 제도개선 협력 및 AI 특례 도입 검토
- 5G 단독모드(SA) 확산과 6G 시연('26년) 등을 거쳐 6G 상용화(~'30년), 피지컬AI 정밀제어가 가능한 고효율·저전력 지능형 기지국(AI-RAN) 구축확산*
 - * 개념검증(서울역, 김포공항 2개소) → 대규모 선제실증(캠퍼스, 산업현장 등)으로 확대

□ 세계적 수준의 차세대 AI 기술 선점, AI폴스택 확보

- AI 한계 돌파를 위한 1조원 규모 범용AI(AGI) 핵심기술개발('27~'33년) 기획 착수, 단기특화ASI, 중장기범용ASI 개발에 도전하는 차세대AI연구조직 설치('26. 下)
- 공공분야 국산 NPU 본격 도입('26년~)으로 초기수요 창출 및 K-NPU 프로젝트* 추진을 통한 '독자 AI모델+NPU 패키지' 완성(~'27년)
 - * 독자 AI모델과 연계한 NPU 성능 고도화 및 실증·사업화 등을 위해 '26년 3,251억 투자
 - 국민성장펀드·AI정책펀드 등과 연계한 NPU기업 맞춤형 지분투자 등 지원*
 - * (선도기업) 국민성장펀드 내 「^{가칭}K-엔비디아 메가프로젝트」를 통한 투·융자 지원 (성장기업) AI혁신펀드·우본·KIF 등 3대 정책펀드 투자를 바탕으로 성장 자금 지원

□ AI인재·스타트업 육성으로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

-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'30년까지 AI중심대학 30개 신설/전환 AX대학원 22개 신설 및 AI대학원(10개) 지원 확대 추진('26년~, 30억→40억/개)
 - ※ '26년도는 우선 AI중심대학 10개 신설·전환, AX대학원 10개 신설 계획
- 유망 AI스타트업이 성장하고, 글로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투자 재원 조성 및 스케일업, 해외시장 개척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
 - ※ AI혁신펀드, KIF, 우본 등 민관합동 투자재원 조성('26년 4천억원, '30년까지 3조원 이상) 등

③ AI 기반 과학기술 혁신 가속화 (국정과제 21·28)

□ 과학기술×AI를 통한 세계 1등 기술 확보

- 과학적 발견 가속화를 위해 2030년 노벨상급 성과창출을 목표로 바이오, 재료·화학 등 6대 강점 분야* 과학기술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
 - * ① 바이오, ② 지구과학, ③ 수학, ④ 재료·화학, ⑤ 반도체·디스플레이, ⑥ 이차전지
- ※ '26년 선행사업을 통해 단기 성과 창출 및 가능성 입증('26~'29년 490억원 6개 과제) + 6대 그랜드챌린지 사업을 신규기획·추진해 개발 본격화('27~'31년, 약 7천억원)
- 연구자가 가설생성, 결과분석 등 연구 전 주기에 걸쳐 AI와 협력하며 창의성·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AI 연구동료(AI Co-Scientist) 개발
 - ※ 2030년 공공형 플랫폼 운영 + 민간 서비스 육성 Two-track을 목표로 '26년 선행 기술개발 착수(ETRI·KISTI '26~'30년 405억원) 및 본사업 기획('27~'31년, 약 1천억원)

□ 대학·출연연 과학기술×AI 전환 촉진

- 대학 연구 DNA에 AI가 융합되도록 기초연구AI 센터 설치('26 20개→'28 40개)
- 지역별 4대 과기원 중심으로 AI 단과대, 산·학 공동투자 AX혁신 연구센터 구축 등 교원·학생 정원*, 첨단인프라 및 투자 대폭 확대
 - * ('26년) 전임교원 29명, 학생 300명 → (~'28년) 전임교원 115명, 학생 750명 증원
- 출연연의 축적된 연구역량과 AI가 융합되어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(가칭) 국가과학AI연구소를 신설하고 융합프로젝트·인프라 통합 지원

□ 새로운 연구문화·윤리 정립

- 과학기술×AI의 가능성·한계를 탐색하는 국내 첫 실험적 시도로서 'AI Co-Scientist Challenge Korea 2026' 경진대회 개최
- 연구 전 과정에서 AI 활용에 따른 책임성·투명성·재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문화·윤리 가이드라인* 마련 및 현장 확산
 - * 『국가연구개발 AI 표준 가이드라인』 마련(~'26.上)

□ 국가연구데이터 생산·공유·활용 활성화

- 연간 6만개 수준의 국가 R&D 과제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를 바이오·소재 등 전문센터를 통해 공개하고, 후속 연구 및 AI 학습 등에 활용
 - ※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('26.上)
- 연구결과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연구기관·분야별 전담기관에서 수집·관리하고, 연구자는 연구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유·활용하는 시스템 구축

④ 국가 AI 대전환 및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 [국정과제 21·23]

□ AI기반의 지역산업 재도약 및 주민 체감 프로젝트 추진

- '26년 서남·동남·대경권·전북의 4대 AX프로젝트('26~'30년, 총 3.1조원)를 시작으로, 5극 3특 지역 특화산업 연계 AX프로젝트 전국 확산

* [1단계] '26년 착수 : 서남(모빌리티에너지), 동남(정밀제조), 대경(바이오·로봇), 전북(AI팩토리)
[2단계] 2026년 기획 → 2027년 착수 : 중부권 + 강원도, 제주도

지역	주요내용	예산('26~'30)
①서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상생활 및 지역 특화산업(모빌리티, 에너지)의 AI전환을 위한 기술개발·실증과 AX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 - 광주 전역의 규제 프리존(메가샌드박스) 적용 추진 	총 6천억원
②동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 제조거점(방산·조선·기계)인 경남지역의 산단기업(데이터)과 협력, 피지컬AI를 구현하여 제조공정에 적용 	총 1조원
③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수도권 최대 ICT집적지('대구 수성알파시티')를 'AX연구거점'으로 구축하고, 지역 특화(바이오·로봇) AX프로젝트 추진 - '30년까지 AX전문기업 1,000개, 종사자 2만명 확보 목표 	총 5.5천억원
④전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북혁신도시에 미래형 무인공장(AI팩토리) 테스트베드를 마련, 제조공장 특화 피지컬AI 풀스택 기술개발 및 실증 	총 1조원

- 정부 보유 자원(GPU·데이터 등)을 연계·지원하고, 지역 산·학·연, 지자체(진흥원) 및 관계부처와 지역 AX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업 추진
- 의료·국방·안전 등 정부AX R&D 우수결과물과 민간 AI혁신서비스를 특정 지역에 집적하여 지역주민에게 서비스
- * '26년 의료 AI지구 선정 및 서비스 착수를 시작으로 국방·안전분야 등 확대 추진
 - (의료 AI지구(안)) 차세대 병원 정보시스템(PHIS)과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병원간 진료기록 연계 AI활용 질병예측, 예후관리 및 응급대응(AI앰불런스) → 의료서비스 제고, '응급실 뱅뱅이' 해결

□ 전 산업의 AI 혁신 가속화

- 제조·물류·조선 등 우리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쏠 산업의 피지컬AI 확산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「가칭」피지컬 AI 구축·확산 전략 수립('26.上)
- ※ '30년까지 독자 핵심기술 확보, '26년에는 초기 실증 기반 구축 및 핵심 제조데이터 확보
- 각 산업/분야별로 AI 전환에 뒤처질 우려가 있는 전통산업 분야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AI 역량강화 및 도입 촉진 지원*('26년 300억원)
- * 데이터 가공·활용, AI 도입 컨설팅 및 업무(공정) 내 활용을 위한 튜닝 등 바우처 제공

- 의료·제조·공공 등 분야별 유망 AX 서비스의 도입·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('26.1Q)하고 선제적* 유예·면제 지원('26.3Q)

* (기존) 기업 신청 기반(Bottom-Up) → (개선) 민·관 공동 발굴(Top-Down) 방식 규제샌드박스

□ 글로벌 AI 기본사회 확산 및 아태 AI 수도로의 도약

- UAE AIDC 구축, 항만물류 AX프로젝트 등에 우리 AI풀스택 (HBM/NPU/AI기술) 참여로 해외시장 진출 성공사례 확보

- 이를 토대로, 중동·아프리카, 아세안 등에 K-AI 확산 가속화

- 국제사회* AI규범·협력을 주도하고, 韓-美(공동연구, AI공급망), 韓-中(피지컬AI) 등 대상별 전략적 협력 추진

* 인도 AI 서밋('26.2월), UN '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'('26.7월)

- 블랙록(데이터센터), 오픈AI(데이터센터, 인재·스타트업), 엔비디아(GPU, 피지컬AI) 등 글로벌 기업과의 실질적 협력 프로젝트 본격화

- 아태지역 우수인재·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창업·연구·정주공간 제공, GPU 지원 등 파격적 유인책 제공하는 아태AI허브 조성

※ 우수 한인 인재가 국내에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 연결 등 창업정책 지원('26년 20팀)

- AI역량 구축 및 AI혁신·전환 지원을 위한 '아태AI센터' 설립을 추진하고, ODA를 활용한 AI 협력사업* 발굴·확대

* (예시) AI를 활용한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(의료·식량·교육 등) 현지 데이터 공동 구축 활용

□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AI·디지털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- AI·디지털 기술을 누구나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「디지털포용법」 본격 시행('26.1)과 'AI디지털배움터*' 확대(37개('25년)→69개('26년)) 추진

* 우체국, 복지관 등 생활 SOC를 활용한 기본역량 강화교육 및 경로당 등으로 찾아가는 교육 제공

- 「AI기본법*」을 본격 시행('26.1)하고 안전·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「(가칭)국가 AI안전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」 수립('26.1)

* (산업 육성) R&D, 학습용데이터 구축, AI도입·활용 지원, 전문인력 확보, 해외진출 지원, 등 (신뢰 기반 조성) 검·인증, AI윤리, 투명성·안전성 확보, 고영향AI 사업자책임, AI 영향평가 등

[전략3]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추진

① K-문샷 프로젝트 추진 (국정과제 28)

- 과학기술·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R&D 프로젝트 기획·추진
 -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'30년까지 기술수준 85%* 달성 목표로, '26년도는 K-문샷 핵심임무 및 마일스톤 설계
 - Top-Down 과학기술×AI 핵심임무, Bottom-Up 선제적 핵심기술 확보 트랙 구분
 - * '22년 최고 기술보유국(미국) 대비 기술수준(%) : 한국 81.5, 중국 82.6, 일본 86.4, EU 94.7

< 예시 : K-문샷 핵심임무 및 목표 >

1. 암·난치질환 정복, AI 기반 신약 개발기간 1/10으로 단축 ('30년) 합성신약 개발 성공률 10배 확대, 생성형 AI 기반 바이오신약 IND 300건 달성	4. 탄소 걱정, 안전 걱정 없는 청정에너지 시대 개막 ◆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 ('30년대) AI 설계 플랫폼 개발, 핵융합로 실증로 건설 ◆ 초고성능 차세대 전지 ('32년) 초고에너지·초안전 차세대전지 기술 확보, 데이터·디지털트윈 등 AI기반 지능형 제조 체계 구축 ◆ AI 기반 원자로 전주기 자동화 ('30년) AI 융합 기반-설계-운영-유지보수 핵심기술 확보
2. 내 집 안의 휴머노이드, 가사 노동과 돌봄에서 해방 선언 ('28년) 독자 휴머노이드 플랫폼,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('30년) 가사·돌봄 현장 보급 착수	
3. 전기차·반도체 자원 수급 변화에도 고떡없는 희토류 저감기술 확보 ('33년) 데이터 및 AI 기반 중희토 대체기술 확보, 경희토 70% 저감 및 친환경 내재화 기술 확보	5. 초지능 AI를 구현하는 Beyond HBM 메모리 반도체 ('30년) HBF, 3D DRAM 기술 상용화 ('32년) 극미세 반도체 압도적 시장 점유율 확보

※ 핵심임무 리스트와 마일스톤은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정기 업데이트 및 재설정

- 대국민 공모전*을 추진하여 연구자들과 일반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, 민관 협력 K-문샷 프로젝트 개방형 기획 추진
- 범부처·민관 협력을 강력히 견인하기 위해 핵심임무별 K-문샷 추진단 구성, 과학기술 장관회의를 통해 협력
- 출연(연)을 국가과학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연구소로 개편(Post-PBS)
 - 출연(연) 주도로 국민체감 기술 성과* '30까지 100개('26 20개) 확보, 양자, SMR, 바이오, 에너지 등 전략기술 분야의 산학연 협력 거점** 수행('26 5,740억원)
 - * 산업경쟁력 강화,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국내외 대형 기술이전, 핵심기술 국산·제품화 등
 - ** 전략연구사업(3,636억원, 77개 과제) 및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(2,104억원, 15개 과제)
 - 성과창출 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성과창출 연계 인센티브* 신설(100개팀 51.2억원), 기업-출연(연) 협력 강화**, 「과기출연기관법」 정비*** 등 추진
 - * 기관평가와 연계하여 우수성과를 창출한 연구팀(연구자)에게 최대 1.2억원 지급
 - ** 출연(연)별, 컨소시엄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, 기업수요 기반 신규과제 기획절차 운영
 - *** 기관 운영의 자율성 원칙 명시, 우수인재 유치·개방형 혁신 등 육성·지원조항 신설

② 미래 전략기술 글로벌 주도권 확보 (국정과제 28)

□ AI바이오 대전환 본격화 및 미래 바이오 산업(뇌·역노화 등) 선도

※ 바이오·의료 R&D투자 전년 대비 23% 확대 : '25년 6,487억원 → '26년 8,023억원

- '30년까지 5대* 분야 AI 바이오 모델 개발 및 산업성과 창출(신약 후보물질 10배 확대)을 위해 '26년 AI바이오 R&D예산 2배 ↑ 확대('26년 1,990억원)

* 5대분야 : ①신약개발, ②역노화·뇌과학, ③의료기기, ④바이오제조, ⑤농식품

대표사업 : AI바이오 기술개발('26년 560억원), 첨단의료기기('26년 200억원), 바이오파운드리('26년 220억원) 등

- AI바이오 연구거점('26년 102억원, 1개 시범조성), 자율실험실('26년 135억원, 6개 시범구축) 등 핵심인프라 구축 착수 및 AI바이오 기반 법률 제정 추진

- BCI(뇌-컴퓨터 인터페이스), 역노화, 미니장기(오가노이드), 합성생물학 등 10년 후 미래 바이오 산업의 핵심기술개발 본격화

※ BCI 육성, 뇌지도 구축 등 지원 확대를 위한 「뇌 미래산업 R&D전략」 수립·발표('26년1분기)
역노화('26년 75억원), 오가노이드('26년 91억원), 합성생물학('26년 190억원) 등 기술개발 추진

□ 양자-AI 융합과 클러스터 조성으로 양자경제 선도

- 국산 양자컴퓨터를 조기 개발('28년)하고, '30년까지 100개의 산업 Use-Case 발굴을 위한 HPC-QC 하이브리드 인프라 구축

※ 양자컴퓨팅서비스 및 활용체계 구축사업('26년 120억) : 슈퍼컴6호기-IonQ 하이브리드 구축

- 양자기술 산업확산을 위해 '30년까지 양자 활용기업 1,200개 육성, 지역 주력산업의 QX를 촉진하는 글로벌 양자 클러스터 지정

※ 퀀텀밸리 조성사업('26년 5억원) :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지자체 클러스터 기획 지원

□ AI시대,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무탄소에너지 혁신기술 개발 가속화

- '30년 민간주도 SMR 생태계 완성을 목표로, (가칭)'차세대SMR 육성 전략'을 수립하고 민관합작 R&BD 메가프로젝트*를 신규 기획·추진

* 분산전원용 소듐냉각고속로(SFR), 산업공정열 공급용 고온가스로(HTGR), 해양·선박용 용융염원자로(MSR) 등 3대노형의 핵심기술·설계를 위해 '30년까지 약 1.2조원 투자

- 핵융합에너지 조기실현을 위해 '30년대 전력실증 목표로, 실증로 개념설계 착수, 핵심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('27년~) 추진

* 핵융합플러그인프로그램('26년 21억), AI기반디지털가상핵융합플랫폼('26년 45억)

③ 기초연구 강화 및 과기인재 육성 [국정과제 27]

□ 기초연구 지원을 통해 장기·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- 정부R&D 10% 이상 기초연구 투자 노력을 법제화하고, 연구기간 확대(1~3년 → 3~5년) 및 10년 이상 장기연구 촉진

※ '30년까지 교원 수혜율 30%('24년, 19%), 전임교원 수혜율 50%('24년 28%) 달성

-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기반(인력·시설·행정)에 투자하는 「성과 기반 블록펀딩」(Research University Funding)을 도입

※ (지원분야) 대학의 발전 전략과 강점에 기반한 연구 영역 중심으로 지원
(지원내용) 전임연구원, 테크니션 등 연구(지원)인력 및 첨단 연구시설·장비 확충 등

□ 국가과학자 제도 본격 시행 등 우수 이공계 인재 성장경로 구축

- 「국가과학자 제도 기본계획」을 마련하고, 리더급 국가과학자 20여 명을 선정('26.上)하여 新이공계 롤모델 제시(~'30년, 100명)

※ 젊은 국가과학자는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'26년에 제도 기획을 추진

- AI 과학영재 조기 양성을 위해 광주·충북 AI 영재학교(年 100명) 설립과 함께 기존 지역학교의 과기원 부설형 전환* 추진

* 지역 수요 기반 공모절차 등을 통해 3개교 내외 전환 → 과학영재 교육의 질적 제고

- 이공계 대학(원)생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장학금·연구생활장려금 확대*, 포닥의 글로벌 연구자로의 도약을 위한 융합연구 확대**

* [장학금] ('26년) 10,370명(1,705명↑, 박사우수장학금 신설) / [장려금] ('26년) 50개교 이상(15개교↑)

** 4대 과기원 이노코어 산학연 공동연구단 확대 등 포닥 지원 강화 : ('26년) 1,042명(508명↑)

□ 전략적 해외인재 유치 “Brain to Korea” 추진

- 리더급 연구자 유치를 위해 연구기관 5개를 선정*하고, 세종과학펠로우십 복귀트랙 신설 등을 통해 해외 한인포닥의 국내복귀 지원(~'30년 : 2천명 유치)

*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해외연구자를 유치할수 있도록 블록펀딩(연 30억원, 1차년도 15억원) 예산 지원

- 해외 주요 연구거점을 방문하여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홍보 로드쇼 개최(2회)

4 도전과 몰입을 위한 R&D 생태계 혁신 (국정과제 26)

□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 R&D 문화 조성

- 결과보다 수행과정의 성실성 중심 평가체계를 도입하고, 의미있는 수행과정 거친 완료과제는 인센티브 부여(후속과제 연계 등) 추진

※ 과제 선정시 목표의 혁신성 평가 도입 (주요 부처별사업 시범 적용, '26.上)

- '실패 확률은 높지만 파급효과가 큰 연구' 및 '목표 미달 의미있는 수행과정'을 거친 연구자를 집중 지원하는 R&D 사업*(전용트랙) 신설

* (가칭) 한계도전 프론티어 R&D 기획('27년 신규)

□ 연구자가 제대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생태계 실현

-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「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」의 신속한 이행을 점검하고 현장소통을 통해 보완사항 발굴·개선

※ 연구자·연구행정직원 등으로 현장점검단을 구성·운영하여 현장착근 제한사항 점검

- 연구자의 몰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과감히 혁파

- '26년에는 행정서식 최소화(현행 465개 → 약 200여 종) 및 연구비(직접비 10%, 간접비 14개 항목 외) 집행 자율화 추진(혁신법 시행령 개정, '26.6.)

- 범부처 통합 데이터*를 활용하여, 소부처 R&D 과제의 보고서 작성, 선정·평가 등 연구 행정 전주기에 AI 적용 ⇨ 행정부담 경감

* 25만개 R&D과제, 110만명 연구자의 연구수행 실적, 성과 673만건(보고서, 논문, 특허 등) 등

□ 세계 최고 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개방과 신뢰의 국제협력 활성화

- '30년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'26년 미·중·EU 등과 연구협력 강화*, 대형 국제회의** 유치·개최, 신규 다자연구 플랫폼*** 구축 등 본격화

* 한미 과기공동위('26.上), 한중 ICT전략대화('26.上), EU 호라이즌유럽 참여확대

** 국내 최초로 IAEA 원자력장관회의(10월), 세계은행 글로벌서밋(10월) 유치·개최

*** 다국적·다학제 연구플랫폼 신설 논의를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·운영('26)

- 해외 신뢰 확보, 우리 기술주권 보호를 위한 연구안보 체계 확립(~'30년)을 위해 국가연구안보 강화방안 마련, 연구안보센터 지정, 관련 제도 법제화* 추진

* 체계 정립을 위한 과기국제협력촉진법 제정, R&D 과제 관련 연구개발혁신법 개정

[전략4] 포용성장 · 국민안전 확보

①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 (국정과제 26)

□ 지역 주도 국가균형성장 체계 구축

- 지역 자율형 정부R&D 예산 대폭 확대('26약 1.6천억원→'275천억원→'301.1조원)
 - 지역 자율형 R&D 본격 추진('26 789억원) 및 연구개발특구 권역별 R&D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혁신역량 제고 및 대형성과 창출*
 - * [수도권 대비혁신역량 ('24년) 35%→('30년) 50%, [특구 내코스닥기업 ('25년) 162개→('30년) 250개]
- 부총리-지방시대위원장-시도지사 협의체를 통한 권역별 성장엔진, 지역특화 R&D-산업-인재를 연계한 지역 성장전략 마련
 - 초광역권 지역 자율 R&D 활성화를 위한 「지역과학기술혁신법」 제정 추진('26.上)
- 지역의 딥테크 창업탐색 거점(실험실창업혁신단)을 대폭 확대하여, '26년 신규고용 2,000명 및 투자유치 1,500억원 목표 달성
 - * 공공기술기반 딥테크 창업 거점 : [수도권('25년) 3개→('30년) 5개, [지역('25년) 4개→('30년) 14개]
- 지역·역량별 기업부설연구소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,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'기업연구자육성기금' 조성 추진(「기업부설연구소법」 '26.2월 시행)

□ 국민안전 현안대응 R&D 추진

- 자연(산불, 가뭄), 산업재해(붕괴, 화재) 등 국민안전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현장수요 기반 긴급 R&D 지원('26년 43.8억원)
- 사전예측과 신속대응을 위한 국민안전 10대 기반기술*을 선제적 개발('26년) 및 현장수요 부처로 연계·활용토록 추진
 - * [재난재해] 유해가스 정밀센싱기술 → 폭발사고 대응(소방청), 작업자 안전관리(고용부) 등
[치안분야] CCTV 영상 분석기술 → 범죄자 추적(경찰청), 시설물 관리(지자체) 등

□ 과학자본 확산을 통한 과학 대중화 실현

- 온국민이 즐기도록 '대한민국 과학축제'를 확대 개최(1개 지역⇒주요 권역별, 4~5월)하고, 과학관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과학관 콘텐츠 확충 지원
 - 국가과학자 등 과학기술인의 대국민 소통활동(대중강연, 토크쇼 등)을 신규 지원('26년 9.3억)하고, 방송·뉴미디어 콘텐츠(예능, 다큐멘터리 등) 제작 지원
- ※ 연내 「제4차 과학문화기본계획」 수립, 「과학문화진흥법」 제정 및 「과학관법」 개정 추진

②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안심 국가 실현 (국정과제 23)

□ 기업에 만연한 보안 불감증을 해소하고 엄정한 책임 체계 정립

-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의 권한을 강화*하는 등 보안을 핵심 가치로 인식하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

* (예) 주요 IT자산에 대한 식별·관리, 정보보호 예산·인력 편성, 이사회 정기 보고 등

-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게 징벌적 과징금(매출액 100분의 3 이하)을 부과('26.上)하는 등 보안에 소홀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벌백계 추진

※ 자연신고 과태료 상향(3→5천만원),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

※ 개인정보위에서 징벌적 과징금 상향을 추진 중(전체 매출의 3% → 대안 검토 중)

- 보안이 부실한 기업은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없도록,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는 제도 신설

※ 정보보호 공시(보안 인력·투자 현황 등 공개) 의무 대상 확대(現 666개사 → 全 상장사) 병행

□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보보호 환경 조성

- 국민이 해킹 사실을 즉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, 해킹 발생 사업자의 이용자 통지 의무화 및 정부의 미디어 기반 알림 체계 구축('26.上)

- 기업의 해킹 사고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, 손해배상에 대한 이용자 입증책임 완화, 단체소송 등 제도 마련

- IP 카메라, 로봇청소기, 월패드 등 생활 밀접 IoT에 대한 국민들의 보안 우려 해소를 위해 보안 평가·공개 제도 신설

□ 정부의 보안 역량 고도화를 통한 해킹과의 전면전 추진

- 공격자 관점에서 진행하는 불시 보안점검 대상을 확대(現 이통3사 → 플랫폼사 등)하고 인증제도(ISMS)의 실효성 및 사후관리 강화*('26.上)

* 현장조사 중심, 중대한 위반 시 인증 취소, 통신사 등 주요 분야 특화 점검항목 개발 등

- AI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, AI 위협 공유체계(AI-ISAC) 구축 등을 통한 탐지·공유 고도화 및 (가칭)AI 사이버 실드 돔* 대형 R&D 추진

* 국내 유입 트래픽을 검증, 이상 트래픽 등 해킹을 선제 예보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기술

- 해킹 정황이 있는 경우 직권 현장 조사('26.上), 특사경 도입(법무부 협의 중)으로 신속한 사이버범죄 수사, 해킹 대응 LLM 개발* 등 대응 역량 고도화

* (목표)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소요시간 : ('25년) 약 3개월/건 → ('28년) 10일/건

IV. 주요 쟁점이슈

민간 분야 해킹사고 대응

□ 개요

- 최근 통신, 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해킹사고*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 불편 및 불안이 가중

* SKT(4.20 유심정보 유출 신고), KT(9.8 불법 펌토셀 신고), 쿠팡(11.19 침해사고 신고) 등

□ 침해사고 피해 현황 및 조치사항

- (SKT) 전화번호, 가입자 식별번호 등 유심정보 25종 유출(약 2,696만건) → **민관합동조사단 조사**(4.23~6.27), **법 위반행위**에 대해 수사의뢰, 과태료 등 처분*

* ▲자료보전 명령 위반(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) → 수사기관에 수사의뢰(7.7),
▲신고 지연(사고 후 24시간 이내) 및 '22년 침해사고 미신고 → 과태료 부과(7.18)

- 재발방지 대책 마련·이행요구(7.7) 및 이행여부 점검(11~12월)

- (KT) 소액결제 368명(2억 4,319만원) 피해, 22,227명의 정보 유출 → **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중**(9.8~), **사고 은폐 축소 행위** 등에 대해 수사의뢰 등 처분*

* ▲서버폐기 관련 증거 은닉 등 정부 조사 방해를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, 수사의뢰(10.2),
▲신고 지연(사고 후 24시간 이내) 및 '24년 침해사고 미신고 → 과태료 부과 계획

- 피해금액 전액 보상 등 **이용자 보호조치 마련** 요구 및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KT 망 접속 차단 등 피해확산 방지

- (쿠팡) 3천만개 이상 계정에서 고객정보 유출 → **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중**(11.30~), **유출정보 악용한 2차 피해** 등으로부터 **이용자 보호조치*** 마련 요구

* ▲결제 관련 중요정보 유출 가능성 대비 보안조치 안내, ▲비밀번호가 유출된 공동 주택 건물에 대한 비밀번호 변경조치 안내, ▲피해 최소화 위한 조치사항 마련 등

□ 향후 계획

- (신속·철저한 조사) KT, 쿠팡 침해사고 원인 및 보안 체계 문제점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, 범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

- (사고대응 패러다임 시프트) 해킹정황 발생 시에도 직권조사, 보안에 소홀한 기업에 대한 **제재조치 강화*** 등 제도 개선

* ▲반복 사고기업에 대한 과징금 신설, ▲재발방지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








2026년

과학기술·AI로 대도약하는 대한민국



AI 3강 도약 본격 시동 및 국민체감 성과창출

국민 모두와 누리는 우리 AI 개발	세계 최고 수준 AI 혁신생태계	AI 대전환 및 글로벌 AI 기본사회
<p> 글로벌 TOP 10 독자 AI 모델 확보(’26. 下)</p> <p>전국민 대상 다양한 AI 서비스 제공</p> <p> 국민체감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착수</p> <p>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등</p> <p> 전국민 AI 경진대회 개최(3월~)</p> <p>사업화 창업 연계 등 지원</p>	<p> (가칭) AI 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 제정</p> <p>행정절차 간소화, 규제 특례 적용 등</p> <p> 독자 AI 모델 연계 K-NPU 프로젝트 추진</p> <p> AGI 및 특화 AI 기술 개발</p> <p> AI 연구 동료 개발</p>	<p> 4대 지역 AX 착수(3.1 조원)</p> <p>서남권 모빌리티·에너지 동남권 초정밀 제조 전북 AI팩토리 대경권 바이오·로봇</p> <p> UAE 등에 K-AI 확산</p> <p> 아태 AI 허브 조성</p>

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추진

NEXT AI 대비 첨단기술 육성	이공계 대학원생 안정적 성장 지원	실패를 용인하는 R&D 시스템 혁신
<p> 정부 R&D 역대 최대 투자</p> <p>’26년 35.5조원</p> <p> “K-문샷 프로젝트” 추진</p> <p>첨단바이오 시바이오, 역노화, 합성생물학 양자 양자컴퓨터 초기 개발(’28) 에너지 차세대 SMR, 핵융합 인프라</p>	<p> 리더급 국가 과학자 선발</p> <p>’26년 20여 명</p> <p>젊은 박사급 국가 과학자 상계 기획</p> <p> 이공계 대학원생 안정적 성장 지원</p> <p>장학금 ’26년 10,370명으로 확대 연구생활장려금 ’26년 50개교 이상으로 확대</p> <p> “Brain to Korea” 추진</p>	<p> 실패 용인 도전적 R&D 문화 조성</p> <p>재도전을 지원하는 전용 트랙 신설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 평가</p> <p> 연구비 자율성 확대</p> <p>직접비 자율사용(10%) 간접비 네거티브 규제 + 부정사용 10배 제재</p>

포용성장·국민안전 확보

기업의 엄정한 보안 책임체계 정립	국민 최우선 정보보호 환경 조성	지역 주도 국가 균형성장 체계 구축
<p> 보안사고 반복기업 대상 징벌적 과징금 부과</p> <p>*매출액 100분의 3 이하</p> <p> CEO의 보안 책임 명문화, 보안 최고책임자 권한 강화</p>	<p> 해킹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화</p> <p> 생활 밀접 IoT(IP카메라 등) 보안 평가·공개 제도 신설</p>	<p> 지역 자율형 R&D 확대</p> <p>(’26) 1,600억원 → (’30) 1.1조원</p> <p> 지역 과학기술 혁신법 제정</p> <p> 주요 권역별 과학축제 확대, 지역 과학관 콘텐츠 확충 지원</p>